

-(느)니다

해라체 평서형 — 글에서 쓰는 형태

책, 뉴스, 일기에서 만나는 형태입니다.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, 특정한 상대를 두지 않은 말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, 모음 어간	- ㄴ 다	가다 → 간다
동사, 받침 어간	- 는 다	먹다 → 먹는다
동사, ㄹ 어간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든다
형용사	- 다 — 사전형	좋다 → 좋다
과거, 모든 품사	- 았/었다	갔다 / 좋았다
이다	- (이)다	학생이다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품사에 따라 나뉩니다. 동사는 모음 뒤에서 -ㄴ다, 받침 뒤에서 -는다가 붙습니다: 간다, 먹는다. 형용사는 그냥 -다를 쓰며, 이는 사전형 그대로입니다: 좋다, 예쁘다. 이다는 -이다가 됩니다. 과거는 모든 품사에서 -았/었다입니다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: 만들다 → 만든다.

주로 쓰이는 곳은 글입니다: 소설, 신문, 학술문, 일기, 자막 등. 높여야 할 청자가 없으므로 높임 표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. 학습자는 무례한 말로 오해하기 쉽지만, 실은 그저 중립적인 말투입니다.

대화에서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쓰이기도 하지만, 더 일반적인 반말 형태는 -아/어입니다. 말할 때 간다는 강조하거나 약간 극적인 느낌이 들고, 가는 평범하게 들립니다.

■ 예문

- 1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 간다.
- 2 한국의 겨울은 매우 춥다.
- 3 오늘도 비가 왔다.
- 4 이 회사는 매년 새 제품을 만든다.
- 5 그 사람은 유명한 작가이다.
- 6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.

■ 비교

-아요/어요
-아요는 청자를 높여 말하고, -(느)니다는 특정한 청자가 없습니다. 일기에는 높임 상대가 없으므로 뒤의 형태를 씁니다.
오늘 비가 와요. (상대에게) / 오늘 비가 왔다. (일기에서)

-아/어 (반말)
둘 다 높임이 없는 말이지만, 말할 때 일상적인 반말은 -아/어입니다. 대화에서 -(느)니다를 쓰면 선언하는 듯하거나 극적으로 들립니다.
나 지금 가. (나 간다, 평범) / 나 간다! (그럼 간다!)

형용사는 사전형 그대로
그래서 좋다는 사전에서나 소설에서나 똑같이 보이지만, 가다는 간다가 됩니다. 이 구분은 이를 바탕으로 한 간접 인용 형태에서 중요합니다.
간다 (동사) / 좋다 (형용사)

■ 주의

- ✗ 한국의 겨울은 춥는다.
○ 한국의 겨울은 춥다.
형용사는 사전형 그대로 -다를 씁니다. -ㄴ다나 -는다는 동사에만 붙습니다.
- ✗ 이 회사는 새 제품을 만들는다.
○ 이 회사는 새 제품을 만든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-ㅁ니다, -(으)세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-ㄴ다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선생님, 저는 지금 간다.
○ 선생님, 저는 지금 갑니다.
이 형태에는 높임이 없습니다. 존중해야 할 사람에게 쓰면 통명스럽게 들리므로 -ㅁ니다나 -아요를 쓰세요.